

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+ 사업단  
HK+ 제5회 국내학술회의

# 코로나이후의 양안관계

－반중정서의 확산을 중심으로

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

책임연구원 공유식

# 양안관계 악화의 배경

- “92합의”에 대한 갈등

- 1992년 회담시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는 합의.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다름
- 중국의 입장 : 하나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어야 함 대만은 중국의 지방정부임. 대만은 92共識을 인정해야 함.
- 대만의 입장 : 국민당과 민진당의 입장이 다름

국민당 :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동의- 92共識

- 하나의 중국이 ‘미래에 다가올 중국(未來中國)
- 대만은 중국의 일개 성이 아니며 서로 예속되지 않는 주권 국가

민진당 : 92共識을 인정하지 않음

대만과 중국은 서로 상관없는 다른 국가.

대만은 중국과 대등한 국가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

# 양안관계 악화의 배경-미중충돌

- 미중수교 이후의 대만정책
  - 전략적 모호성(strategic ambiguity):
  - 대만을 중국을 상대하는 하나의 카드로 사용
  - 1982, 대만관계법: 유사시 대만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
- 트럼프 시기의 대만정책
  -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대만에 대하여 적극성 증가
  - 미국의 안보우산을 더욱 강화-무기판매 강화-9차례에 무기 수출
  - 2018, 대만 여행법 : 미국 공무원들의 대만방문 허용
  - 2019, 대만 보증법 :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의 정례화

# 양안관계 악화의 배경-민진당의 대만화정책

- 민진당은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정당
  - 대만화와 대만독립 : 대만은 원래 중국과는 상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지우려 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대만독립. 중국이 지금 중화민국국기만 보고도 대만독립을 운운하지만 이는 그나마 민족 정체성은 중화민족으로 인정하는 것임
- 2000년 민진당 1차 집권 : 교과서 등에 대한 대만화. 국회는 국민당계가 과반을 넘겨서 철저히 하지 못함
- 2016년 민진당 2차집권 : 국회까지 장악하여 철저히 시행중
  - 과거청산
  - 대만정명
  - 국제사회 진출

# 반중정서의 역사적 요인

- 대만의 지리적 요인
  - 섬이라 그리 중시되지 않음
- 대만의 역사적 요인
  - 청말이 되어야 직접통치
  - 일본에 넘겨줌
- 228사건 이후의 반국민당 정서
  - 국민당 대만입성초기에는 반발이 그리 많지 않음
  - 국민당군대와 현지인간의 갈등
  - 228사건으로 많은 대만인 엘리트가 살해당함
  - 반국민당 정서의 심화

# 민주화와 반중정서

- 민주화 이전: 경제발전에 의한 체제적 우월감
- 민주화 이후 : 정치발전에 자부심 및 체제적 우월감
- 민주화=대만화(탈중국화)라는 공식이 생겨남
  - 봉중필반(逢中必反)

# 홍콩사태와 반중정서

- 대만은 홍콩사태에서 반중정서가 고조됨
-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한 반감이 고조된 상황이었음
  - 일국양제와 92합의가 같은 것이라는 프레임이 통함
  - 민진당 역전의 계기
- 이는 대만의 총통선거 결과에까지 연결
- 한궈위의 파면에도 이러한 정서의 연장선

## 코로나와 반중정서

- 대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모범국가
- 코로나바이러스가 만연하자 대만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금지
- 마스크 수출제한, 국민배급제
- 판데믹이 선포되자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제한



# 코로나와 반중정서-양안 갈등

- 바이러스 명칭 갈등

- 우한폐렴? 新型冠狀病毒肺炎?

- 마스크 갈등

- 초기 중국에 대한 마스크 금수조치

- 전세기 갈등

- 우한 주재 대만 교민들 운송 전세기 운행 주체문제로 갈등

# 코로나와 반중정서

- 대만은 이에 중국은 방역도 정치화 한다고 반발
- 사실 대만은 이번 기회에 독립된 개체로서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있었음.
- 국내 반중정서를 이용하여 마스크정책을 관철시킴
- 판데믹 이후에 미국에 마스크제공의사를 밝힘
- WHA 에서는 대만을 중국의 지방정부로 간주, 지원에서 제외—대만의 불만 야기

# 향후 전망

- 바이든이 당선되었지만 대중국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
- 중국은 민진당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속
- 대만내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 심화
- 차이잉원에 대한 지지도 급상승
- 대만내 반중 정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
- 양안관계도 당분간은 갈등이 지속될 것임
- 동북아시아 국제사회 당사자 모두 정치적 판단이 방역에 우선
- 방역은 정치에서 자유로워야 함